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2, No. 11 pp. 5027-5033, 2011

http://dx.doi.org/10.5762/KAIS.2011.12.11.5027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내 문화적응

한진숙[1*]
[1]건양대학교 간호학과

A Study on Accultur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Jin Sook-Han[1*]
[1]**Department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 내에 정착하여 사는 북한이탈주민이 문화에 적응하는 의미의 본질을 밝히고 이해하고자 질적 연구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에 3년 이상 거주한 9명의 북한이탈주민들로 현재 모두 D시에 살고 있다. 자료 수집은 심층 면담을 하여 녹취하였다. 자료 분석은 Colaizzi의 현상학적 방법에 의해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내에 정착하면서 겪는 적응은 3개의 범주와 11개의 주제 모음이 도출되었다. 최종으로 도출된 3개의 범주는 '다른 문화에서 오는 이질감', '탈출 후 다양한 고난을 체험함', '현실을 극복하고자 노력함'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내 정착하여 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 적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여 적응할 수 있도록 문제점과 고난 극복 과정에 대해 이해를 도와 적극적인 적응 프로그램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a qualitative research on the essential structure of the accultur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who settled in South Korea.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nine North Korean defectors who had resided in the city of D, South Korea, for three years or more after defecting from North Korea. After an in-depth interview,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applying Colaizzi's phenomenological method. As a result, their acculturation wer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 'heterogeneity coming from different cultures', 'undergoing various sufferings after defection', and 'trying to tide over the difficulties in the actuality'. And 11 clusters of theme were selected. It's basically meant in this study to find out problems North Korean Defectors encountered and their process of overcoming the difficulties in an effort to step up the acculturation of the new settlers and ease their difficulties. And it's suggested that adjustment programs should be provided for them to fit into South Korean society.

Key Words : North Korean defectors, Acculturation, Phenomenological study

1. 서론

새로운 삶을 찾아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통일부[1]에 의하면 2000년대 들어서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2년에 1,138명으로 증가하였고 2006년에 2,018명, 2011년 3월까지 총 입국자수는 20,916명으로 증가하였다. 북한인의 이주 역사가 본격화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국가와 민간단체의 기금지원이나 취업지원, 사회보장지원 등 지원제도는 계속 되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의 직장 생활 부적응과 범죄나 비행, 우울증, 단절 등의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들의 문제가 정치적 사상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며 생존하기 위한 문제라는 것이다[2]. 이러한 이주, 차별, 적응, 정체성 등의 문제는 북한이탈주민만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난민과 이주민도 겪는 공통적인 문제이다

*교신저자 : 한진숙(jshan@konyang.ac.kr)
접수일 11년 09월 15일 수정일 11년 09월 22일 게재확정일 11년 11월 10일

[3].

이기영[2]은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주민에 대한 이미지와 제 3국에 거주했던 탈북자의 이미지, 남한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의 이미지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남한 사람이 보는 북한이탈주민의 시각은 매우 다양하다고 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에 입국하여 일시적으로 부자로 착각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이 실업자나 무능력자 등의 취급을 받으면서 적응 생활에서 정체성 혼란과 양가감정을 갖는다고 하였다. 의사소통이나 선입견과 편견 등 북한이탈주민과 한국인의 보이지 않는 단절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적응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보기도 한다[4]. 이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내 적응을 연구한 결과를 보면 여러 가지 갈등과 더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5-8].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동기는 굶주림 등의 생활고로 중국에 밀입국하여 불안한 삶을 살며 한국 입국을 결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두려움과 불안감, 성매매, 임금 착취, 비인간적 대우가 지속되면서 심한 상처를 받게 된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문화가 다른 한국에서 가중되어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Ryan 등[9]은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이주민들이 적응에 실패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범죄나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자살시도 등의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Caplan[10]은 불쾌 정서 경험은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필수 요소이고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일으키는 주요 예측요인이라고 설명하였다. 하나원이 2007년 제출한 '베이징·선양 영사관 해외출장 결과 종합보고' 자료에 의하면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은 탈북자들 중 전체 응답자의 50%가 심각한 정서적 수준의 문제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11]. 이는 한국 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최근 각 매체에서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국내 적응을 잘 하지 못하여 북한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우울증 환자가 속출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현상을 발표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12].

삶의 질을 각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권, 가치 기준 안에서 자신의 목표, 기대, 규범, 관심과 관련된 자신의 상태에 대한 개인적인 지각이라고 정의한 세계보건기구의 언급이나 김종경 등[13]이 북한이탈주민의 스트레스의 원인과 증상을 질적연구 방법으로 연구할 것을 제언하였듯이 북한이탈주민의 삶을 단순히 물질적 척도가 아닌 문화적응 지지 차원에서 깊이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생생한 언어로 의미를 전달하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이들이 한국 내에서 겪는 문화적응의 실체를 파악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한국 내 경험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을 도와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내에서 정착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며 개인적인 것으로 이러한 경험을 양적인 측정이나 관찰을 통해 경험의 본질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참여자의 진술을 통해 인간적으로 경험된 현상의 의미를 밝히는 경험의 연구로,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내에서 정착하면서 겪는 체험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본질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개인의 경험을 생생하게 발견하여 그 본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2.2 연구대상

연구 참여자는 D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다. 연구자가 이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자에게는 연구 참여자의 권리와 면담 자료를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폐기할 것과 윤리적 고려 사항, 연구 참여의 철회 가능성, 익명성 및 비밀 보장을 설명하였다.

2.3 자료수집

자료 수집은 D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주로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하여 긴장감을 풀게 한 뒤 면담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며 대화의 깊이를 더해 갔다. 개방적이고 반구조적인 질문 형식으로 심층 면담에 들어갔으며 면담 내용은 참여자의 허락을 받아 녹취를 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자료내용이 포화될 때까지 자료 수집을 하였으며 총 9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참여하였다. 반구조화된 질문은 '한국에서 정착하여 살면서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였다.

면담은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심층 면담을 하였다. 면담 횟수는 참여자 1인에 1-2회씩 실시하였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참여자의 면담내용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내에서 겪는 문화경험'의 의미를 찾아내고 그 의미의 본질적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Colaizzi[14]가 제시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자는 녹음된 테이프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녹취작업을 하였고, 필사본을 반복해서 읽으며 의미 있는 단어와 구, 문장을 찾고자 노력하였으며, 주제와 주제 모음을 분명히 하고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의미를 확인하는 순환 과정을 거치며 현상학적 반성을 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참여자 9명 중 남자는 3명, 여자는 6명이다. 9명 모두 중국을 거쳐서 제3국을 통해 한국에 오게 되었으며 한국 거주 기간은 3년 이상인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여자 참여자들은 자영업을 하는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식당 등의 직장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으며, 남자 참여자도 자영업을 하는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명은 투병중이었다.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남	여	기타
연령	30대		2	
	40대	2	3	
	50대	1		
	60대		1	
한국 거주 기간	3년	1	2	
	4년	1	2	
	5년		1	
	6년	1	1	
결혼 지역	남한	2	2	미혼1, 미망인1
	북한	1	2	
직업	유	1	4	
	무		2	
질병	유	2		본인투병2 (남편 투병1)
	무			
학력	고졸	2	2	
	대졸	1	4	
자녀	유	2	4	참여자 4명은 북한에 자녀 있음
	무	1	2	

3.2 연구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내에 정착하면서 겪은 문화적응을 자료 수집 후 분석하였다. 의미 있는 진술을 도출하여 32개의 주제를 형성하였으며, 이 주제들을 묶어서 11개의 주제 모음을 구성하였고, 이를 3개로 범주화하였다. 이들 3개의 범주는 '다른 문화에서 오는 이질감', '탈출 후 다양한 고난을 체험함', '현실을 극복하고자 노력함'으로 도출하였다.

3.2.1 다른 문화에서 오는 이질감

참여자들이 한국에서 느끼는 문화적 충격은 의식구조의 차이나 언어의 이질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물질적 만족보다 더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끼면서 오는 불안감이다. 범주 1은 3개의 주제모음으로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3.2.1.1 의식 구조의 차이로 좌절감을 겪음

계급사회에 익숙한 북한이탈주민들은 경쟁의식이 없이 적당히 살아가는 데 익숙해져 있어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기 어려우며 이것은 생존의식과 연결 된다. 한국에 오는 과정에서 종교계의 돌봄을 당연하게 여기고 한국에서의 삶도 노력 없이 얻어지리라 기대한다. 북한이탈주민 중에는 이러한 자신들의 의식 구조를 개탄하면서 신속히 한국 사회를 파악하여 적응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참여자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은 한국인들의 이중적인 의사표현이다. 본인 앞에서는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뒤에서는 귀에 담지도 못할 막말을 하는 것에서 심한 충격과 함께 문화적 이질감을 느끼게 된다.

3.2.1.2 같은 언어 속에서 이질감을 느낌

참여자들이 한국에 와서 쉽게 느끼는 이질감 중 하나가 외래어나 표현 방법의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이다. 보통 쓰는 말에 외래어가 많고 발음이 강하고 다르게 표현되어서, 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된다.

3.2.1.3 막연한 불안감과 외로움을 느낌

참여자는 한국의 물질적 풍요 속에서 안정감과 함께 혼자라는 생각을 한다. 넓은 한국에서 아는 사람도 없고 같이 살 사람도 없다는 외로움이 밀려온다.

특히 혼자 내려온 사람들은 외로움 외에 막막함도 느낀다고 하였다. 북한에서는 무언가 할 일이 있었는데 한국에 오니 오직 자기 혼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이런 외로움이 한국에서 견디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표 2] 범주 1
[Table 2] Categorization 1 of data

범 주	주 제 모 음	주 제
다른 문화에서 오는 이질감	의식구조의 차이로 좌절감을 겪음	-한국과 북한 사회의 구조적 차이로 적응을 못하다 -탈북 후 남의 도움을 받던 습관을 버리지 못해 적응이 늦어지다 -한국 사람의 이중적 태도에 실망하다
	같은 언어 속에서 이질감을 느낌	-남북의 말이 달라 의사소통이 어렵다 -외국어 사용이 일상화되어 어렵다
	막연한 불안감과 외로움을 느낌	-아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움을 느끼다 -물질적 만족보다 마음이 더 쓸쓸하다 -자유로운 제도에서 불안감이 느껴지다

[표 3] 범주 2
[Table 3] Categorization 2 of data

범 주	주 제 모 음	주 제
탈출 후 다양한 고난을 체험함	취업이 어려워 서러움을 느낌	-북한 사람이라서 취업이 잘 안 되다 -돈 들여 취득한 자격증이 무용지물이 되다
	직장에서 오래 견디기 어려움	-같은 직원이라도 차별대우를 받아서 화가 나다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선입견으로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다 -항상 초보라고 임금을 적게 주어 속상하다 -동료들이 적대감을 가지고 대해서 힘들다
	고통이 질병으로 나타남	-생활의 어려움으로 우울증에 걸리다 -힘든 일로 허리가 아프다 -병명도 모르는데 온 몸이 아프다
	상대적 빈곤으로 더욱 빈곤감을 느낌	-한국인과 자신을 비교하여 더 스트레스를 받다 -삶에 여유가 생기니 오히려 죽고 싶은 마음이 들다 -식량 문제가 해결되니 다른 욕심이 생기다 -자식의 장래를 생각할 때 더 잘 살고 싶다

3.2.2 탈출 후 다양한 고난을 체험함

북한에서는 굶주림만 해결이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막상 한국에 와서 살면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려고 보니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범주 2의 탈출 후 다양한 고난을 체험함'으로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3.2.2.1 취업이 어려워 서러움을 느낌

국내에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면서 직장에 취업을 하려 해도 적대감을 가지고 대하므로 어려우며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비인격적 대접을 받으며 수모를 겪는다. 동족이기에 중국에서와는 다른 감정을 느끼면서 분노하고 서러움을 느끼게 된다.

3.2.2.2 직장에서 오래 견디기 어려움

참여자들이 취업의 문턱에서 좌절감을 느끼는데 업주들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문전박대하며 그들을 더욱 좌절하게 만든다. 취업이 되어도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일은 더 많이 시키는 것에서 분노를 느끼고 적대감을 갖게 된다.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기도 어렵다. 정부에서는 무료 학원을 활용하여 적응하기를 권하나 학원에서 배운 지식으로 취업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결국 식당 등에서 일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3.2.2.3 고통이 질병으로 나타남

탈북 중 고난을 겪어서 심신이 지쳐 있는 상태인 데다 체제가 다른 한국에서 받는 스트레스까지 더해진다. 거기에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하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결국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중되어 신체적 질병으로 나타나게 된다. 허리가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전신질환으로 진행되고 우울증 등의 정신적 이상 증세까지 오게 된다.

3.2.2.4 상대적 빈곤으로 더욱 빈곤감을 느낌

참여자들은 굶주림만 면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된다. 같이 내려온 다른 북한이탈주민보다 잘 살고 싶고, 잘 사는 한국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싶은데 가진 것이 없으니 더욱 서글퍼지고 빈곤감을 느끼게 된다.

3.2.3 현실을 극복하고자 노력함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택한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이에 대처하고자 한다.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꾸며 좌절 속에서 신앙심이 돈독해지고 의지하게 된다. 그러나 북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아픈 마음은 사라지지 않고 더 아련해져서 향수병을 심하게 앓는 사람도 있다. 범주 3은 참여자들이 한국 정착을 위해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으로 4개의 주제모음으로 구성되며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3.2.3.1 자아실현과 자활의지가 강해짐

북한에서 적극적으로 살았던 참여자일수록 한국에 와서도 삶의 의지가 강하다. 한국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질병에 시달리는 북한이탈주민들도 많지만 자유를 찾아 굶주림을 면하려고 한국에 왔으니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실천하려고 한다.

3.2.3.2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짐

참여자들은 현실이 비록 비참하고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서 희망을 찾아 전진하려고 노력한다.

자식이 있는 사람은 본인의 삶을 희생을 하면 북에서 자라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고 믿고 노력한다. 마치 자신들의 희생을 자식에게서 보상을 받으려는 마음이다.

3.2.3.3 돈독한 신앙심을 갖게 됨

북한을 탈출하면서 겪은 고통으로 절대자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게 된다. 목숨이 절박해져 찾았던 신을 한국에서 살면서 믿게 된다. 그렇게 형성된 신앙심은 절대적이며 순수하여 믿음이 점점 깊어지게 된다.

3.2.3.4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연민의 정을 품음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에서 살다 보니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이 생각나게 된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족을 북에 두고 온 사람들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 그로 인한 고통을 가슴에 안고 살아간다.

4. 결 론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 정착하여 경험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현상학적인 연구 방법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다른 문화에서 오는 이질감', '탈출 후 다양한 고난을 체험함', '선택한 세계에서 고난을 극복하고자 노력함' 등 3개의 범주와 15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이들 중 '다른 문화에서 오는 이질감'은 '의식구조의 차이로 좌절감을 겪음', '같은 언어 속에서 이질감을 느낌', '막연한 불안 감과 외로움을 느낌'으로 도출되었으며, '탈출 후 다양한 고난을 체험함'은 '취업이 어려워 서러움을 느낌'과 '직장에서 오래 견디기가 어려움', '고통이 질병으로 나타남', '상대적 빈곤으로 더욱 빈곤감을 느낌',으로 도출되었다. '현실을 극복하고자 노력함'은 '자아실현과 자활의지가 강해짐',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짐', '돈독한 신앙심을 갖게 됨', '가족에 대한 연민의 정을 품음'으로 도출되었다.

이들 범주의 흐름을 보면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서의

[표 4] 범주 3
[Table 4] Categorization 3 of data

범 주	주 제 모 음	주 제
현실을 극복하고자 노력함	자아실현과 자활의지가 강해짐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애쓰다 -성공하려면 한국 사람보다 몇 배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다 -미래의 꿈을 향해 가며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짐	-자신의 희생으로 자녀를 성공시키고 싶어지다 -공부를 계속하여 목적을 달성하고 싶어지다 -자식의 장래를 생각해서 더 잘 살고 싶어지다
	돈독한 신앙심을 갖게 됨	-탈북과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신앙심이 깊어지게 되다 -적응의 어려움으로 인해 절대자에게 의지하고 싶어지다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연민의 정을 품음	-자녀에 대한 그리움으로 애간장이 녹아나다 -북한에 있는 자식 생각으로 삶을 이어가다 -북한의 자녀에게 애틋한 마음을 금전으로 보상하고 싶어하다

새로운 삶 속에서 안도감과 함께 외로움, 소외감, 서러움을 안고 살아간다. 아픔을 하소연할 가족과 친구가 없으므로 이주민으로서 받는 스트레스를 풀어 갈 방법조차 찾지 못하는 것이다. 엄태완[6]의 주장과 같이 북한이탈주민들은 체제가 다른 국가에 들어와서 비사회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로 인해 외상성 경험, 스트레스, 허망감, 우울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며 나아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해결되지 않은 심한 스트레스는 각종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참여자 대다수가 우울증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탈북과정에서 얻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과 함께 한국 내 정착 과정 중의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적 빈곤에서 오는 사회에 대한 분노심, 사기로 인한 상실감 등은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진행되며 자살 등의 극단적 행동과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6][15].

적응의 개념이 상호의존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개인의 내적인 심리적 욕구와 외적인 사회적 환경과의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 일상생활에서 좌절감이나 불안감 없이 만족을 느끼는 상태로 정의되는데[16], 남북한의 문화적 이질감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문화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언어적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한국인의 이중적인 의식구조 등 북한과 다른 문화에서 적응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17]. 이러한 문화적 이질감은 조정아·정진경[6]의 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참여자들은 직장을 구하거나 직장에 적응하는 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그로 인해 문화적응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양적으로 연구한 윤인진[7]의 연구를 본 연구와 비교해 보면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이 사회문화적응에 있어서 부적인 적응이 많아 어려움을 겪는 내용은 일치하며 이러한 결과로 인해 신체적 질병이 진행되어 이환율이 높다고 지적한 결과도 또한 본 연구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윤인진[7]의 연구에서는 심리적 적응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표리부동한 모습과 함께 현실에 대한 불신과 의심 등 매우 부정적인 요소를 찾아낸 반면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심리적 방어기전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자아실현과 자아의 의지를 강하게 표현한 것을 나타냈다. 이러한 차이는 질적 연구에서 참여자들의 생생한 경험을 그들로부터 이끌어낸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의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여 신앙에 의지하기도 하고 새로 구성된 가족들에게 의지하면서 고통을 극복해 나간다. 북에 남은 가족에 대한 연민의 정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동시에 좌절감도 느끼면서 한국 사회에 서서히 적응해 나간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스트레스를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부작용이 나타나므로 이를 위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엄태완[8]이 제시한 남북주민 통합을 위한 정신건강 전략이 사회심리적 지원 전략이 개발되어 있지만 아직 실행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이 급격히 증가하는 데 따른 인력과 지원은 한계가 있다고 보며[18],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범국민적 참여가 필요하다.

[표 5] 연구내용의 비교
[Table 5] Comparison with Yoon's

본 연구 내 용		윤인진 연구 내용
사회문화적응	ㅡ 의식구조 차이로 좌절감 겪음 ㅡ 같은 언어 속에서 이질감을 느낌 ㅡ 직장에서 오래 견디기 어려움 ㅡ 막연한 불안감과 외로움을 느낌	ㅡ 남북한의 언어, 가치관의 차이 ㅡ 사고방식, 사회제도 등의 차이 ㅡ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 부정적 태도 ㅡ 직장 생활이 어려워짐 ㅡ 언어 습득이 어려움
사회관계적 적응	ㅡ 상대적 빈곤으로 더욱 빈곤감을 느낌 ㅡ 돈독한 신앙심을 갖게 됨	ㅡ 종교활동을 활발하게 함 ㅡ 교제의 폭이 좁음 ㅡ 차별을 받음
심리적 적응	ㅡ 자아실현과 자활의지가 강해짐 ㅡ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짐 ㅡ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연민의 정을 품음	ㅡ 자신의 노력 없이 기대가 큼 ㅡ 삶의 목표 불확실 ㅡ 타인에 대한 의심과 불신
주관적 건강인식	ㅡ 고통이 질병으로 나타남	ㅡ 기본적인 건강 저하 ㅡ 자신의 건강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함 ㅡ 실제로 만성질환 이환율이 높음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이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은 조기에 교정되어야 하며 정신적인 건강을 회복한 뒤 새로운 생활의 적응을 돕는 대처 능력이 함양될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References

[1] Ministry of unification. www.unikorea.go.kr, 2011.

[2] K. Y. Lee,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against social adjustment in North Korean refugee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pp. 267-290, 2005.

[3] I. J. Yoon, "Social recognition and distances from North Korean refugees: Comparison among the handicapped, foreign workers, and homosexuals, Integration and harmony of North Korean refugees within community",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Center for Social Welfare Research Conference, pp. 267-290, Yonsei University, Seoul, 2003.

[4] J. A. Cho, et al., "A study on conflicts in workplace of North Korean refugees", Unification Policy Studies, Vol. 15(2), pp. 29-52, 2006.

[5] S. Y. Kim, "Study on settlement status of sateomin(refugee from North Korea) and improvement measures", National Information Center BRICs, Vol. 38, pp. 249-269, 2006.

[6] T. O. Eum, "A strategy for mental health for integration of South-North Korean residents. Through comparison among North Korean refugees, low-income residents, and general residents within South Korea",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4(1), pp. 297-323, 2004.

[7] I. J. Yoon, "The actual condition for social adjustment and a plan of a support for settlement in North Korean migrants", Asiatic Research Institute, Korea University, Vol. 50(2), pp. 106-182, 2007.

[8] K. H. Lee, et al., "Identifying factors affecting the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Unification Policy Studies, Vol. 15(2), pp. 1-28, 2006.

[9] A. S. Rayan, et al., "Mental health training for southeast asian refugee resettlement workers", International Social Work. Vol. 30, pp. 186, 1987.

[10] G. Caplan, "Mastery of stress : psychosocial aspects in America", Journal Psychiatry, Vol. 138, pp. 413-420, 1989.

[11] Seoul Newspaper, "A general report on the results of overseas official trip in a consulate for Beijing·Shenyang", Retrieved January 23, 2007, from The Seoul Newspaper. http://www.seoul.co.kr/, January, 2007.

[12] Today Korea, "Article of being urgent in a national improvement plan for North Korean refugees settlement", Retrieved July 24, 2009, from http://www.todaykorea.co.kr, July, 2009.

[13] J. K. Kim, et al., "A study on acculturation stress and streee-coping amoung North Korean defector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 23(1), pp. 50-59, 2011.

[14] P. E. Colaizzi,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pp. 48-71, 1978.

[15] Y. A. Cho, et al., "A study on the role and the intervention strategies of mental health professionals for North Korean", Unification Policy Studies, Vol. 15(2), pp. 53-78. 2006.

[16] I. J. Yoon, "The actual condition and a plan for supporting the North Korean refugees adjustment to South Korean society",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Education Center for Unification, Seoul, 2000.

[17]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North Refugee family stability and social adjustment of the family and women's role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Seoul, 2000.

[18] Y. S. Yoon, "North Korea defectors in accordance with policy alternatives proliferate", Journal of National Strategies, Vol. 9(1), pp. 65-88, 2003.

한 진 숙(Jin-Sook Han) **[정회원]**

- 1993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석사
- 2001년 8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박사
- 1995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여성건강, 미혼모, 노인 여성